

부산물비료 및 유기질비료의 공급확대방안

지난 8월27일에는 농림부에서 유기질, 부산물비료 품질관리 및 공급확대 방안이란 주제를 놓고 협의회가 있었다.

주요내용은 2004년도 농림부 보조사업에 대한 지침마련으로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다.

연이어 28일에는 농어민신문사 주체로 부산물비료(퇴비)올바른 생산 및 유통체계구축을 위한 간담회란 주제로 회의가 있었다.

두회의에서 거론되었던 의제들을 사안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1. 일반현황

- ❖농협(□97년), 정부(□98년이후)보조지원사업 추진으로 생산량 및 생산업체증가, 생산업체

수(□02, 12월현재):
1,106개업체(유기질183개, 부산물비료 923개업체)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소비증대

- 생산:(□90)221천톤
→(□02)2,501(11.3배 증가)

-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소비량급증

*소비량(kg/ha):

(□90)100→(□00)764

→(□01)815→

(□02)1,238

2. 문제점

❖정부보조사업에 따른 지원물량의 부족

- □03년도: (농가주문)1,500천톤→(지원계획)600천톤(40%)

❖부정, 불량비료에 대한 유통근절미흡

- 영세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능력부족

- 시,도 비료유통단속공무원의 운영제도미흡

3. 앞으로의 전망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논농업 직불제 확대등으로 고농도 제품인 화학비료는 지원감축등으로 사용량이 줄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부산물 비료의 소비는 증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2005년 이후에는 화학비료 보조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고 퇴비의 지원은 현 60만톤에서 단계적으로 150만톤 까지 확대 지원 될 예정임

협약내용 결과

☒ 보조지원

❖2005년까지 화학비료의 보조지원이 전면중단되면 부산물비료 쪽으로 지원을 확대시킬 예정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재 60만톤규모를 최대 150만톤 규모까지 지원예정임

❖현재까지 지원 방법은 판내차손 보존방식으로 농협이 구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고 그 차액 만큼 사후 정산 하여 지원하는 형태 였으나 앞으로는 지원액을 확정해 당해 년도 결산체제로 변경할 예정임

❖지원액은 현재 화학비료가 25%지원하고있으므로 25~30%선을 생각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50%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30%선을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4년까지는 지원액이 정해져있어 올해와 변동이없이 실행될 예정임

단 내년부터는 그린퇴비가 품목 추가되어 그 공정 규격이 다른 만큼 차등 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업체선정기준

퇴비 : 생산능력 연간 1,000톤이상

유기질비료 : 연간 판매액5억 이상으로 되어있음

유기질비료의 경우 대다수가 농협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므로 신규업체는 연간 5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리기 불가능함.

사실상으로 신규업체의 참여가 막혀있다.

이것을 현재 지정업체 중 우수생산업체를 별도로 지정 하고있는데 이 업체들에게는 퇴비의 매출도 인정하여 참여가 쉽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함

농협측의 설명은 농협에 납품하는 모든 농자재가 동일 하게 적용받고 있다.

만약 판매후 이상이 생겨 농민이 피해를 보았을때는 농협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농협으로서는 납품 업체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협외에 농민에게 판매한 액수가 5억정도 되면 믿을만하다고 생각되어 그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생긴 제도이나 신규업체 참여가 불가능

하다하니 선정기준을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고함.

☒ 납품가격 계약

❖농협지역본부와 납품금액을 제시하여 계약한 후 단위조합에 다시금 운송비 문제를 협상하여 추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중계약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협측의 설명은 운송비문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운송비 부분을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였다고 함

올해 전북지역 같은 곳에서는 50%정도가 추가 약정을 했는데 거의가 운반비를 추가하여 계약되었지 운송비부분을 감해준 계약은 없었다고 함.

❖실제로는 그렇지않은 사례가 있으니 근거가 있으면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해주고 추가 약정 금액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함.

☒ 품질관리

❖현재 연간 2회 봄, 가을로 단속을 실행하고 있는데 검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가 많다.

또한 시, 군공무원을 통해 올라오는 시료중에는 수분이 무려 9%짜리 제품들도 있었다.

이는 시료채취시 채취 방법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시료채취에 협조하지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제조치를 가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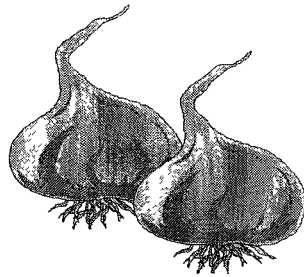
반면 최근 몇 년간 아무이상없이 생산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일정 기간 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협회에서는 더욱더 품질관리에 신경쓰고 적극 지도할 것을 당부함

보조지원이 확대될 경우 업계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임.

❖단속공무원의 일손 부족으로 문제가 되던 부분은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 원활한 단속업무를 진행시킬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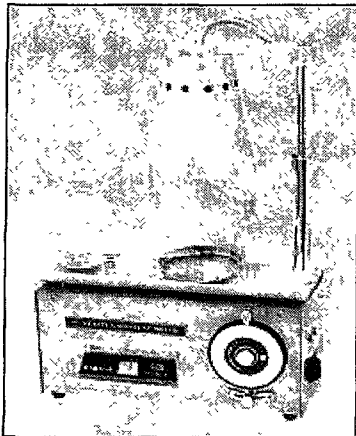
2004년도 부터는 공정규격에 수분항목이 추가되어 단속이 실시된다.

수분항목은 일반 퇴비의 경우 50%이하 그린퇴비의 경우 45%이하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차위반에 대하여는 경고, 2차 위반시 1월 영업정지, 3차위반시는

2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자체 수분검사를 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아직 수분측정기를 구입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하여 협회에서는 생산자와 직접연결, 구매 알선하고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35만원이다. 필요한 업체는 협회사무실로 연락바람.

이 수분측정기는 램프가열식 수분측정기로서 디지털식 측정기의 금액 150만원~200만원에 비해 저렴하고 현재 업체내 여러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고있는 기종이다. (사진 참조)



「농협지정 부산물비료우수생산업체」신청

2002년도부터 「농협지정 부산물비료(퇴비) 생산업체 운용기준」에 농협지정퇴비 생산업체중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억원이상 납품업체로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그린(1급) 퇴비 등록업체는 신청에 의거 「농협지정 부산물비료(또는 퇴비)우수생산업체」로 지정 별도로 운영하고있다.

2002년도에는 황성위탁영농을 비롯하여 16개 업체가 지정된 바있다.

우선은 지정후에 별도의 다른 혜택은 주워지지않으나 비료포대에 “농협납품 우수생산업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으며 추후 유기질비료생산시 우선권을 주는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있다.

해당되는 업체는 9월24일까지 협회사무실로 연락주기바란다.

도 지회 및 회원사 소식

✧강원도지회 모임

지난 8월16일에는 강원도지회의 특별모임이 있었습니다.

영월비료의 엄기만 강원도지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이 참석하시어 강릉 옥계 해안가에서 1박2일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협회 회장이신 김상원회장님이 강원도 소속이라 더욱 알찬 모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옥계에 공장을 갖으신 옥토영농조합 장 영규사장님의 세심한 배려로 불편함이 없이 숙식이 해결되었습니다.

특별했던 사항은 협회장님이신 김상원 회장님은 소문난 바다의 사냥꾼이셨습니다. 아주 베테랑 수쿠버다이버로써 그날 모임에 술안주는 직접잡은 생선으로 너무도 풍성했었습니다.

우럭, 놀래미, 성게, 해삼, 멧게, 문어까지 다양한 바

다의 진미를 맛 볼수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부부가 같이 참석하는 모임을 갖자고 합의해 타지역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서로간 경쟁업체인 회원사들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정보도 교환하며 업계전체를 경쟁관계가 아닌 발전적 동업자관계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협회만이 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태풍 매미

이번 태풍매미의 위력은 대단하였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여도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초라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작년 태풍에이어 올해도 많은 피해를 입은 회원사가 있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경남 부림유기질비료 같은경우에는 작년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위로의 전화 한통화씩이라도 권해봅니다.

(011-9532-2377 차 일우사장)

✧전남지회

우리협회 전남지회장이신 영산영농대표 김용팔사장님이 추석연휴기간동안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학훈단장교로 군대간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 완쾌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입회원 안내

하반기 우리협회에 가입한 신입회원사 명단입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바랍니다.

상 호	대표자 이름	전 화	휴대폰	주소
유암산업(주)	박문주	061-337-0630	011-623-0630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주)지바이오 텍	박중윤	031-641-5187	011-377-7061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풍년비료	윤영수	061-371-1130	011-625-058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주)트리텍스 케미칼	장하진	061-722-8828	011-676-4856	전남 순천시 조례동

☒ 홈페이지 한글도메인등록

인터넷 주소창에 영어가 아닌 한글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연결되는 한글도메인주소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협회에서도 “두엄누리”와 “퇴비비료” 두개의 도메인주소를 등록하였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소창에 한글 주소를 입력하면 홈페이지에 바로연결이된다.

홈페이지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

제품에 수분함량 관리 철저

내년부터 공정규격에 따른 수분함량의 규제가 실시될 예정인데 아직 수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올들어 내년실시에 대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성분분석에 수분항목을 미리 넣어

측정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수의 제품이 수분함량 과다로 측정되고있다.

현재 비료단속은 농촌진흥청에서 1년에 두 번 상, 하반기 나누워서 실시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1년에 두 번 실시하고있다.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단속은 농업과학기술원 지정분석기관중에 “석회석가공업조합”. (주)에이앤드에프, 농협사료축산연구소, 제일분석센터(주)등 4개업체를 지정 하여 서로 번갈아가면서 시료채취와 성분검사를 하고있다.

시료채취시에는 관할지역 농협직원과 동행하여 채취한후 공정성을 기하기위하여 채취한 업체가 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다른업체에 넘겨서 분석하게하고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단속은 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과학기술원 식물영양과에서 실행하고 있고 시료채취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있으나 간혹 시군 단속공무원을 통하여 채취케하여 성분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성분검사에서 시료채취과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기준을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품을 공들여 잘 만들어 놓고도 단속시 시료채취 방법이 잘못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로 수분함량측정은 100그램미만의 시료를 저울에 달아 무게를 측정 한후 시료를 건조시켜 남아있는 중량을 뺀 나머지가 수분함량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남아있는 물질을 고형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뉜다.

수분 함량만을 생각한다면 이중 무기물 함량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전체량에 대한 수분의 함량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유기물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하므로 잘 계산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일좋은방법은 수시로 수분측정기를 통한 점검을 일상화하고 이에따라 원자재에서부터 정확한 배합비율

을 정해놓고 생산하는 것일 것이다.

자세한 비료품질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관계법령에보면 상세히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찬조희비 징수협조

지난번 2/4분기 이사회에서 단체품질인증제도 실행에 따른 재정마련을 회원사 각자의 찬조지원금으로 실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공문과 소식지를 통하여 그 필요성과 사업내용을 여러차례 알려 드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원래 결정사항은 9월 20일까지 두차례에 나누어 60만원씩을 납입하기로 결정하였으니 18일현재 그것도 1회분만 9개업체가 송금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회원사 여러분들의 일 이오니 적극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농협납품량에
대한 수수료 납부가 미납
된 회원사가 아직 남았습
니다.

대다수 회원사가 납부하
여주시어 협회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회원사는 빠른시
일안에 납부를 당부합니
다.